

말씨와 활동성의 체질특성 문항에 대한 통계적 분석

문성택, 이시우, 김흥기¹,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¹충남대학교 통계학과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concerning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Pattern of speech and activity'

Moon Seongtaek, Lee Siwoo, Kim Honggi¹, Kim Jongyeol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¹Statistics Departm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o evaluate the sui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questionnaire concerning personal properties on 'pattern of speech and activity'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that were used in Iksan Wonkwang Oriental Medicine, we analyzed the data of 1,335 patients obtained through the electronic chart in the aspect of 'relative discrimination ability' to Sasang constitutions and 'response ratio' using statistical Package SPSS.

In categories of 'speech pattern', No.2 (speak mildly and softly) was effectively discriminating Soeum type. No.4 (talkative) and No.7 (speak fast) were effective factors for the discrimination of Soyang type, though No.4 (talkative) was needed to be improved in response ratio.

The category of 'activity pattern' has shown high response ratio but low discriminating power. However, No.2 (keep staying home but avoid going out) in this category was effectively discriminating Soeum type.

The discriminating power of 'pattern of speech and activity' for the age group less than 20 years old was too low,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questionnaire for the elementary to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for the preschoolers.

key words : relative discriminating power, response ratio, question category, characteristics of 'pattern of speech and activity', Sasang Constitution.

I. 서론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말하는 기운¹⁾과 성기²⁾로 체질을 구별하는 길을 제시하였으며, 『四象要覽』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소양인은 어운이 맑고 枯燥한 편이며 말 기운이 좋은 자가 많다. 태음인은 말이 적으며 어운이 웅장한

사람이 많고 대개 침중한 기운이 있다. 소음인은 온유한 편이다' ³⁾라고 하였다.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는 '소음인의 특징은 항상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나가기를 싫어하며, 소양인의 欲舉而不欲措하는 특성은 감정과 일 처리에 있어

□ 접수 ▶ 2007년 2월 20일 수정 ▶ 2007년 4월 5일 채택 ▶ 2007년 4월 22일
□ 교신저자 ▶ 김종열,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83 Fax 042-863-9462 E-mail ssmmed@kiom.re.kr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729.
17-9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643.
3-7 太陽之性氣 恒欲進 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 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 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 而不欲出.
3) 李道耕, 四象要覽, 益山: 圓佛敎出版社, 1995:169.

서 급하게 시작하되 뒤가 무른 것으로 매우 활동적이다' 4) 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말씨와 활동성에 관한 내용들이 그동안 체질판별의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상의학계는 성정의 나타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진표를 활용하거나 진료실에서의 직접 문진을 통해 체질판별에 임하고 있다. QSCC⁵⁾와 같은 설문검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보다 신뢰도 높은 설문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적 인상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7) 에서 '상대변별력' 이란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였고, '응답율' 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문진항목의 체질별, 남녀별, 연령별 유효성을 분석하는 통계적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적용이 간편하고 분석이 명료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성격과 화가 났을 때 표현방법, 자기의사 표현방법 등의 항목을 분석하여 사상체질의 성격 특성에 대한 통계적 연구⁸⁾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앞 연구들에 이어서 말씨와 활동성에 관한 문항들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각 문항이 체질별로, 남녀별로, 연령별로 어떤 변별력을 가지는지 임상검증을 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⁶⁾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익산원광한의원에 내원한 초진 환자 중 주증이 호전된 환자 1337명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정보은행에 등록하고, 그 환자들 중 통계처리의 편의를 위해 태양인 2명을 제외한 1335명의 주증상호전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남녀별, 연령별, 체질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남녀별, 연령별 체질 분포

구분 체질 N.%	나이(살)							여자	남자	합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				
소음인	N	34	9	54	63	54	40	51	209	96	305
	%	18.3	8.6	21.2	25.0	26.9	27.4	26.4	26.5	17.5	22.8
소양인	N	58	32	62	69	61	41	68	242	149	391
	%	31.2	30.5	24.3	27.4	30.4	28.1	35.2	30.7	27.1	29.2
태음인	N	94	64	139	120	86	64	72	335	304	639
	%	50.5	60.9	54.5	47.6	42.8	44.5	37.3	42.6	55.3	47.8
합	N	186	105	255	252	201	145	193	786	549	133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문항의 개요

『東醫壽世保元』의 서술과 그 외에 사상의학이 기록되어 전수되어져온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말씨와 활동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말씨' 에 관련된 문진 항목은 말소리의 특징, 말 수, 말 속도에 관계된 내용들이다. 음인들은 말수가 적고 느리며, 양인들은 말수가 많고 빠른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태음인은 말소리가 웅장하고, 소음인은 말투가 순하고 부드러운데, 소양인은 말소리가 맑을 것이다. '말씨' 의 여러 항목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문항을 만들었다.

말씨	① 말소리가 웅장 ② 말이 순하고 부드러움 ③ 말소리가 맑음 ④ 말 수가 많음 ⑤ 말 속도가 느림 ⑥ 말 수가 적음 ⑦ 말 속도가 빠름
----	---

2) 『東醫壽世保元』에서 “태양인의 性氣는 항상 전진하려고 하지만 후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소양인의 성기는 항상 거동하려 하지만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다. 태음인의 성기는 항상 고요하려고 하지만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소음인의 성기는 항상 들어 앉으려고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7) 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활동성' 에 관한 문진 항목은 다음과 같은 세부 문항으로 만들었다.

활동성	① 움직이기 싫어함 ② 밖에 나가기를 꺼린다. ③ 매우 활동적이다 ④ 전진만 있고 물러서지 않음
-----	---

4) 李泰浩,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울: 杏林出版, 1990:28.

5) QSCC(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四象體質分類檢査

6) 김종일, 김홍기, 「성격 특성에 관한 체질판별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 126-127.

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535.

3. 연구방법⁸⁾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익산원광한의원에서는 환자를 진료할 때 예진실에서 성격과 행동 양식을 묻는 46개의 성정문진 항목이 들어있는 앞면과 음식, 한열, 소화, 대소변, 땀, 월경, 운동, 수면, 소증, 가족력 및 과거력 등을 묻는 뒷면으로 구성된 문진표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1차 問診을 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들은 ‘Approach 96’ 을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만든 전자차트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Source Data를 얻고 SPSS 11.0을 이용하여 남녀별, 연령별, 지역별 변수에 따른 체질분포를 분석하였다.

성정문진의 각 영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한 영역 내의 문진 항목이 4개면 그 응답형태가 24 가지 까지, 8개면 응답형태가 28 가지나 나올 수 있다. 이 중에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 항목의 응답자가 3% 미만인 경우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분석하였으며, 무응답자도 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았다.

2) 상대변별력과 응답율

김 등의 ‘전체적 인상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7에서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대략 변별력 0.5 이상, 응답율 10% 이상이면 문항의 유효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았다.

III. 결 과

1. “말씨” 영역의 결과 및 분석

‘말씨’ 영역의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볼 때 체질별 응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P=0.001) 이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판별항목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2번 ‘말이 순하고 부드러움’ 항목 응답자의 소음인 변별력은 전체 집단에서 0.47(응답율 17.4%)로 높은 편이었다.

4번 ‘말수가 많음’ 항목 응답자의 소양인 변별력은 전체집단에서 0.71로 매우 높으나 응답율이 7.4%로 낮았다.

태음인 변별 항목으로 설정한 5번 ‘말 속도가 느림’ 항목은 뜻밖에도 태음인 변별력은 없고 오히려 소음인 변별력이 0.52로 높았다. 이것은 태음인의 행동양식으로 볼 때

<표 2> “말씨” 항목의 전체적 응답 분포

항목	체질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N	%				
1	N		39	17	31	87
	col %		6.1	5.6	7.9	6.5
	변별력		-0.06	-0.14	0.22	
2	N		71	53	34	158
	col %		11.1	17.4	8.7	11.8
	변별력		-0.06	0.47	-0.26	
3	N		22	12	16	50
	col %		3.4	3.9	4.1	3.7
	변별력		-0.08	0.05	0.1	
4	N		21	8	29	58
	col %		3.3	2.6	7.4	4.3
	변별력		-0.24	-0.4	0.71	
5	N		21	18	13	52
	col %		3.3	5.9	3.3	3.9
	변별력		-0.16	0.52	-0.14	
6	N		93	46	37	176
	col %		14.5	15.1	9.5	13.2
	변별력		0.1	0.14	-0.28	
7	N		66	15	68	149
	col %		10.3	4.9	17.4	11.2
	변별력		-0.08	-0.56	0.56	
17	N		30	8	21	59
	col %		4.7	2.6	5.4	4.4
	변별력		0.06	-0.41	0.22	
25	N		31	17	9	57
	col %		4.8	5.6	2.3	4.3
	변별력		0.13	0.31	-0.46	
26	N		58	34	16	108
	col %		9.1	11.1	4.1	8.1
	변별력		0.12	0.38	-0.49	
37	N		14	8	27	49
	col %		2.2	2.6	6.9	3.7
	변별력		-0.4	-0.29	0.89	
기타	N		123	48	47	218
	col %		19.2	15.7	12.1	16.3
무응답	N		51	21	42	114
	col %		8	6.9	10.8	8.5
합	N		640	305	390	1335
	col %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chi^2 = 108.05$ P = 0.001		$\chi^2_{0.05}(24) =$	

8) 김종열, 김흥기, 「성격 특성에 관한 체질판별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 126-127.

<표 3> "말씨" 항목의 남녀별 응답 분포

항목	체질 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	N	19	20	14	3	18	13	51	36
	col %	5.7	6.6	6.7	3.1	7.5	8.7	6.5	6.6
	변별력	-0.13	0	0.03	-0.52	0.15	0.33		
2	N	29	42	34	19	20	14	83	75
	col %	8.6	13.8	16.3	19.8	8.3	9.4	10.6	13.7
	변별력	-0.18	0.01	0.54	0.45	-0.21	-0.31		
3	N	15	7	10	2	12	4	37	13
	col %	4.5	2.3	4.8	2.1	5	2.7	4.7	2.4
	변별력	-0.05	-0.03	0.02	-0.12	0.06	0.13		
4	N	13	8	7	1	18	11	38	20
	col %	3.9	2.6	3.3	1	7.5	7.4	4.8	3.6
	변별력	-0.2	-0.28	-0.31	-0.71	0.54	1.03		
5	N	12	9	12	6	8	5	32	20
	col %	3.6	3	5.7	6.3	3.3	3.4	4.1	3.6
	변별력	-0.12	-0.19	0.41	0.72	-0.18	-0.08		
6	N	42	51	25	21	21	16	88	88
	col %	12.5	16.8	12	21.9	8.7	10.7	11.2	16
	변별력	0.12	0.05	0.07	0.36	-0.22	-0.33		
7	N	46	20	11	4	48	20	105	44
	col %	13.7	6.6	5.3	4.2	19.9	13.4	13.4	8
	변별력	0.02	-0.18	-0.61	-0.48	0.49	0.67		
17	N	20	10	8	0	13	8	41	18
	col %	6	3.3	3.8	0	5.4	5.4	5.2	3.3
	변별력	0.14	0	-0.27	-1	0.03	0.64		
25	N	21	10	13	4	5	4	39	18
	col %	6.3	3.3	6.2	4.2	2.1	2.7	5	3.3
	변별력	0.26	0	0.25	0.27	-0.58	-0.18		
26	N	32	26	22	12	11	5	65	43
	col %	9.5	8.6	10.5	12.5	4.6	3.4	8.3	7.8
	변별력	0.15	0.09	0.27	0.6	-0.45	-0.57		
37	N	9	5	7	1	15	12	31	18
	col %	2.7	1.6	3.3	1	6.2	8.1	3.9	3.3
	변별력	-0.32	-0.5	-0.15	-0.68	0.58	1.46		
기타	N	56	67	35	13	31	16	122	96
	col %	16.7	22	16.7	13.5	12.9	10.7	15.5	17.5
무응답	N	22	29	11	10	21	21	54	60
	col %	6.5	9.5	5.3	10.4	8.7	14.1	6.9	10.9
합	N	336	304	209	96	241	149	786	549
	col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여	$\chi^2 = 57.877,$ $P = 0.000$						$\chi^2_{0.05}(24)$ =	
	남	$\chi^2 = 67.618,$ $P = 0.000$							

생소한 분야에서는 말이 없이 과묵한 경향을 보이지만, 잘 아는 분야에서는 조리 있게 말 하는 경향이 있어서 태음인들이 5번 ‘말 속도가 느림’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 소음인의 경우도 응답율이 5.9%로서 큰 의미는 없었다.

7번 ‘말 속도가 빠름’ 항목의 소양인 변별력은 0.56(응답율은 17.4%)로 충분히 높았다. 이 항목은 소양인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3번 ‘말소리가 맑음’ 과 7번 ‘말 속도가 빠름’ 복수응답자의 소양인 변별력은 0.89(응답율 6.9%)로 매우 높았는데, 이 항목의 경우는 7번 ‘말 속도가 빠름’ 에 비해 응답율은 낮지만 변별력은 더 높으므로 7번 ‘말 속도가 빠름’ 항목 응답자에게 3번 ‘말소리가 맑음’ 항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게 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그 외에 각각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변별항목으로 설정한 1번 ‘말소리가 웅장’, 3번 ‘말소리가 맑음’, 6번 ‘말수가 적음’ 항목은 거의 변별력이 없었으며 기타 복수응답자의 경우도 특이한 결과가 없었다.

‘말씨’ 항목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소음인 변별항목으로 2번 ‘말이 순하고 부드러움’, 소양인 변별항목으로 4번 ‘말수가 많음’ 과 7번 ‘말 속도가 빠름’ 이 유용하나 4번 ‘말수가 많음’ 의 경우 응답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태음인 변별항목은 새로 개발해야 한다.

‘말씨’ 영역의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볼 때 남녀별 분포에서는 모두 체질별 응답분포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번 ‘말이 순하고 부드러움’ 항목 응답자의 소음인 변별력은 여성이 0.54로 남성 0.45보다 약간 높았다.

4번 ‘말수가 많음’ 항목 응답자의 소양인 변별력은 남녀별로는 남성의 변별력이 1.03으로 여성의 0.54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7번 ‘말 속도가 빠름’ 항목의 소양인 변별력은 남성이 0.67로 여성 0.49보다 높았다. 3번 ‘말소리가 맑음’ 과 7번 ‘말 속도가 빠름’ 복수응답자의 소양인 변별력은 7번 ‘말 속도가 빠름’ 과 같이 남성이 1.46으로 여성 0.58보다 높았다. 4번 ‘말수가 많음’ 항목과 7번 ‘말 속도가 빠름’ 항목에서 소양인 남성이 소양인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회 관습상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표현을 자제하고 절제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씨와 활동성의 체질특성 문항에 대한 통계적 분석

<표 4> "말씨" 항목의 연령별 응답 분포

항목	체질 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	21-40	41-	-20	21-40	41-	-20	21-40	41-	-20	21-	41-
1	N	8	14	17	1	5	11	7	5	19	16	24	47
	col %	5.1	5.4	7.6	2.3	4.3	7.6	7.8	3.8	11.2	5.5	4.7	8.8
	변별력	-0.08	0.14	-0.13	-0.58	-0.1	-0.13	0.41	-0.19	0.28			
2	N	21	29	21	9	25	19	8	14	12	38	68	52
	col %	13.3	11.2	9.4	20.9	21.4	13.1	8.9	10.7	7.1	13.1	13.4	9.7
	변별력	0.02	-0.17	-0.03	0.6	0.59	0.35	-0.32	-0.2	-0.27			
3	N	11	4	7	3	3	6	5	4	7	19	11	20
	col %	7	1.5	3.1	7	2.6	4.1	5.6	3.1	4.1	6.5	2.2	3.7
	변별력	0.07	-0.29	-0.16	0.07	0.18	0.11	-0.15	0.41	0.11			
4	N	6	7	8	2	3	3	9	11	9	17	21	20
	col %	3.8	2.7	3.6	4.7	2.6	2.1	10	8.4	5.3	5.8	4.1	3.7
	변별력	-0.35	-0.35	-0.04	-0.2	-0.38	-0.44	0.71	1.03	0.43			
5	N	5	12	4	0	12	6	5	3	5	10	27	15
	col %	3.2	4.6	1.8	0	10.3	4.1	5.6	2.3	3	3.4	5.3	2.8
	변별력	-0.08	-0.13	-0.36	-1	0.93	0.48	0.62	-0.57	0.06			
6	N	13	46	34	4	17	25	2	16	19	19	79	78
	col %	8.2	17.8	15.2	9.3	14.5	17.2	2.2	12.2	11.2	6.5	15.6	14.5
	변별력	0.26	0.14	0.05	0.42	-0.07	0.19	-0.66	-0.22	-0.23			
7	N	21	29	16	2	6	7	12	31	25	35	66	48
	col %	13.3	11.2	7.2	4.7	5.1	4.8	13.3	23.7	14.8	12	13	8.9
	변별력	0.11	-0.14	-0.2	-0.61	-0.61	-0.46	0.11	0.82	0.65			
17	N	3	12	15	0	1	7	2	6	13	5	19	35
	col %	1.9	4.6	6.7	0	0.9	4.8	2.2	4.6	7.7	1.7	3.7	6.5
	변별력	0.11	0.24	0.03	-1	-0.77	-0.26	0.29	0.22	0.18			
25	N	7	13	11	2	9	6	1	5	3	10	27	20
	col %	4.4	5	4.9	4.7	7.7	4.1	1.1	3.8	1.8	3.4	5.3	3.7
	변별력	0.29	-0.06	0.32	0.35	0.44	0.11	-0.68	-0.28	-0.52			
26	N	7	28	23	1	15	18	1	6	9	9	49	50
	col %	4.4	10.8	10.3	2.3	12.8	12.4	1.1	4.6	5.3	3.1	9.7	9.3
	변별력	0.43	0.12	0.11	-0.25	0.33	0.33	-0.64	-0.53	-0.43			
37	N	2	7	5	2	2	4	9	7	11	13	16	20
	col %	1.3	2.7	2.2	4.7	1.7	2.8	10	5.3	6.5	4.5	3.2	3.7
	변별력	-0.72	-0.14	-0.4	0.04	-0.46	-0.26	1.24	0.69	0.75			
기타	N	35	46	42	9	14	25	16	11	20	60	71	87
	col %	22.2	17.8	18.8	20.9	12	17.2	17.8	8.4	11.8	20.6	14	16.2
무응답	N	19	12	20	8	5	8	13	12	17	40	29	45
	col %	12	4.6	9	18.6	4.3	5.5	14.4	9.2	10.1	13.7	5.7	8.4
합	N	158	259	223	43	117	145	90	131	169	291	507	537
	col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20			$\chi^2 = 34.293, P = 0.080$						$\chi^2_{0.05}(24)$ =		
		21-40			$\chi^2 = 66.597, P = 0.000$								
		41-			$\chi^2 = 39.705, P = 0.023$								

‘말씨’ 영역의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볼 때 21세 이상 집단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모두 체질별 응답분포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P값이 0.080으로 높아서 체질별 응답분포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번 ‘말이 순하고 부드러움’ 항목 응답자의 소음인 변별력은 40대 이하에서 0.60(응답율 21% 내외)으로 높으나 41세 이상에서는 0.35(응답율 13.1%)로 변별력과 응답율이 모두 낮아졌다.

4번 ‘말수가 많음’ 항목 응답자의 소양인 변별력은 연령별로 20세 이하와 21-40대에서 각각 0.71(응답율 10.0%), 1.03(응답율 8.4%)로 높고 41세 이상에서는 0.43(응답율 5.3%)으로 낮아졌다.

태음인 변별 항목으로 설정한 5번 ‘말 속도가 느림’ 항목은 21-40대(응답율 10.3%) 외에는 응답율이 낮고, 20세 이하에서는 오히려 소양인 변별력이 0.62로 나오는 등 분포가 일관성이 없어서 문항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번 ‘말 속도가 빠름’ 항목의 소양인 변별력은 21세 이상 연령층에서 0.65~0.82로 높았으나 2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0.11로 매우 낮았다.

3번 ‘말소리가 맑음’ 과 7번 ‘말 속도가 빠름’ 복수응답자의 소양인 변별력은 전체 연령층에서 0.69~1.24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활동성’ 영역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을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P=0.000)

4번 ‘전진만 있고 물러서지 않음’ 항목과 복수항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4%이고, 무응답이 11.3%로서 전체적으로 응답율은 매우 높았다. 하지만 변별력은 대체적으로 낮았다.

1번 ‘움직이기 싫어함’ 의 항목은 소양인의 경우 응답율이 11%이고, 변별력은 -0.4로서 상대적으로 약간 큰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움직이기 싫어함’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소양인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번 ‘밖에 나가기를 꺼린다’ 항목의 소음인 변별력은 ‘활동성’ 전체집단에서 0.5(응답율 20.3%)로 가장 높았다.

3번 ‘매우 활동적이다’ 항목은 응답율이 50.5%로 아주 높았다. 태음인과 소음인의 경우 변별력이 음의 값(-0.1과 -0.2)을 나타내고, 소양인의 경우 응답율 63.1%(변별력 0.25)로 소양인의 변별항목으로 가능성은 크지만, 유용성은 떨어진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매우 활동적이 되어야 하고, 본인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지금의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2. “활동성” 항목의 결과 및 분석

<표 5> “활동성” 항목의 전체적 응답 분포

항목	체질 N, %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N	col %	변별력	N	col %	N	col %	N	col %
1	N	136		64		43		243		
	col %	21.3		21		11		18.2		
	변별력	0.17		0.15		-0.4				
2	N	78		62		41		181		
	col %	12.2		20.3		10.5		13.6		
	변별력	-0.1		0.5		-0.2				
3	N	307		121		246		674		
	col %	48		39.7		63.1		50.5		
	변별력	-0.1		-0.2		0.25				
기타	N	52		16		18		86		
	col %	8.1		5.2		4.6		6.4		
무응답	N	67		42		42		151		
	col %	10.5		13.8		10.8		11.3		
합	N	640		305		390		1335		
	col %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chi^2 = 57.221, P = 0.000$			$\chi^2_{0.05}(8) =$					

<표 6> “활동성” 항목의 남녀별 응답 분포

항목	체질 N, %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	N	74	62	43	21	23	20	140	103
	col %	22	20.4	20.6	21.9	9.5	13.4	17.8	18.8
	변별력	0.24	0.09	0.16	0.17	-0.5	-0.3		
2	N	38	40	42	20	28	13	108	73
	col %	11.3	13.2	20.1	20.8	11.6	8.7	13.7	13.3
	변별력	-0.2	-0	0.46	0.57	-0.2	-0.3		
3	N	155	152	85	36	150	96	390	284
	col %	46.1	50	40.7	37.5	62.2	64.4	49.6	51.7
	변별력	-0.1	-0	-0.2	-0.3	0.25	0.25		
기타	N	30	22	12	4	14	4	56	30
	col %	8.9	7.2	5.7	4.2	5.8	2.7	7.1	5.5
무응답	N	39	28	27	15	26	16	92	59
	col %	11.6	9.2	12.9	15.6	10.8	10.7	11.7	10.7
합	N	336	304	209	96	241	149	786	549
	col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여	$\chi^2 = 36.925, P = 0.000$						$\chi^2_{0.05}(8) =$	
	남	$\chi^2 = 25.162, P = 0.001$							

<표 7> “활동성” 항목의 연령별 응답 분포

항목	체질 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	21-40	41-	-20	21-40	41-	-20	21-40	41-	-20	21-	41-
1	N	26	68	42	5	40	19	3	21	19	34	129	80
	col %	16.5	26.3	18.8	11.6	34.2	13.1	3.3	16	11.2	11.7	25.4	14.9
	변별력	0.41	0.03	0.26	0	0.34	-0.1	-0.7	-0.4	-0.3			
2	N	11	36	31	3	23	36	7	17	17	21	76	84
	col %	7	13.9	13.9	7	19.7	24.8	7.8	13	10.1	7.2	15	15.6
	변별력	-0	-0.1	-0.1	-0	0.31	0.59	0.08	-0.1	-0.4			
3	N	98	102	107	26	33	62	65	76	105	189	211	274
	col %	62	39.4	48	60.5	28.2	42.8	72.2	58	62.1	64.9	41.6	51
	변별력	-0.1	-0.1	-0.1	-0.1	-0.3	-0.2	0.11	0.39	0.22			
기타	N	8	26	18	1	6	9	3	6	9	12	38	36
	col %	5.1	10	8.1	2.3	5.1	6.2	3.3	4.6	5.3	4.1	7.5	6.7
무응답	N	15	27	25	8	15	19	12	11	19	35	53	63
	col %	9.5	10.4	11.2	18.6	12.8	13.1	13.3	8.4	11.2	12	10.5	11.7
합	N	158	259	223	43	117	145	90	131	169	291	507	537
	col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20			$\chi^2 = 12.911, P = 0.115$						$\chi^2_{0.05}(8)$ =		
		21-40			$\chi^2 = 29.990, P = 0.000$								
		41-			$\chi^2 = 23.674, P = 0.003$								

‘활동성’ 영역의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볼 때 남녀별 응답분포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P = 0.001, 여자 P = 0.000)

1번 ‘움직이기 싫어함’의 항목은 소양인 여자의 경우 변별력이 -0.5(응답율 9.5%)로서, 소양인 남자가 -0.3(응답율 13.4%)인데 비하여 상당히 큰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움직이기 싫어함’이라고 대답한 사람 중 소양인 여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번 ‘밖에 나가기를 꺼린다’ 항목에서 소음인 남녀의 경우 응답율이 20.1%와 20.8%로 비교적 높았고, 변별력은 남자가 0.57이고 여자가 0.46으로 소음인 남자를 판별하는 항목으로 유의성이 높았다.

3번 ‘매우 활동적이다’ 항목은 응답율이 남자 51.7%, 여자 49.6%로 아주 높았으나 변별력이 낮아서 유용성은 떨어진다.

‘활동성’ 영역의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볼 때 21세 이상 집단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모두 체질별 응답분포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P값이 0.115로 매우 높아서 체질별 응답분포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까닭은 어린 아이의 경우 소양인 항목인 3번 ‘매우 활동적이다’ 항목의 응답율이 모든 체질에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실제로 젊은 층들이 매우 활동

적이기도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교육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번 ‘밖에 나가기를 꺼린다’ 항목의 소음인 변별력은 연령별로는 41세 이상에서만 0.59로 높을 뿐 40세 이하에서는 낮아서 문항의 유용성이 적었다.

IV. 결 론

1. ‘말씨’ 영역의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볼 때 전체, 남녀 별 및 21세 이상 집단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모두 체질별 응답분포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 통계분석의 의미가 있었으나 2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P값이 0.080으로 높아서 체질별 응답분포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말씨’ 영역의 2번 ‘말이 순하고 부드러운’ 항목은 소음인 여성의 경우 소음인 판별항목으로 유의성이 높았다. 4번 ‘말수가 많음’ 항목 응답자의 소양인 변별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20세 이하 집단과 21-40세 집단에서 높았다. 7번 ‘말 속도가 빠름’ 항목의 소양인 변별력은 0.56(응답율 17.4%)로 충분히 높았으나 2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0.11로 매우 낮았다.

3. ‘말씨’ 영역에서 각각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변별항목으로 설정한 1번 ‘말소리가 웅장’, 3번 ‘말소리가 맑음’, 6번 ‘말 수가 적음’ 항목은 거의 변별력이 없었으며 기타 복수 응답자의 경우도 특이한 결과가 없었다. ‘말씨’ 영역을 종합해보면 소음인 변별 항목으로 2번 ‘말이 순하고 부드러움’, 소양인 변별항목으로 4번 ‘말수가 많음’ 과 7번 ‘말 속도가 빠름’ 이 유용하나 4번 ‘말수가 많음’ 의 경우 응답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태음인 변별항목은 새로 개발해야 한다.
4. ‘활동성’ 영역의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볼 때 전체, 남녀별 및 21세 이상 집단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모두 체질별 응답분포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P값이 0.115로 매우 높아서 체질별 응답분포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율은 매우 높으나 변별력은 낮았다. 그 중에 오직 2번 “밖에 나가기를 꺼린다 ‘ 항목의 소음인 변별력만이 전체집단에서 0.5(응답율 20.3%)로 높았으나 연령별로는 41세 이상에서만 0.59로 높을 뿐, 40세 이하에서는 낮아서 문항의 유용성이 적었다.
5. 2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말씨와 활동성’ 영역 질문항목의 변별력이 낮았다. 이것으로 이 두 영역에서는 중고등학생과 초등생 이하 아이들을 위한 설문이 별도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V.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7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 ‘한방진단 표준개발’ 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VI. 참고문헌

1.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함흥:보원계, 1900.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 『四象醫學』, 서울:集文堂, 1997.
3.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1).
4. 김종술,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 김종열, 송정모, 김경요,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의학회지』, 1998;10(1).
6. 李泰浩,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울:杏林出版, 1990.
7. 김종열, 김홍기, 「‘전체적 인상’ 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2).
8. 김종열, 김홍기, 「성격 특성에 관한 체질판별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
9. 李道耕, 『四象要覽』, 益山:圓佛敎出版社, 1995.
10.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서울:소나무, 1992.
11. 천성수, 박종순, 『사회과학 조사분석론』, 서울:아시아 미디어리서치, 2000.
12. 박정민, 나상균, 『SPSS 11.0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법문사, 2003.
13. 허명희, 『통계적 개념·방법·응용』, 서울:자유아카데미, 1998.